

국립세종수목원 '세종으로 온 창덕궁' 해설 프로그램 운영

- 오는 11월 30일까지 방문객 대상 현장 접수 -

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류광수)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문화를 알리기 위한 '세종으로 온 창덕궁' 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.

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시청이 함께 운영하는 이번 해설 프로그램은 ▲ 우리나라 궁궐정원의 특징 ▲ 전통정원식물과 문화 ▲ 세종지역의 역사·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.

이번 해설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오전 11시, 오후 3시 하루 2회씩 운영(월요일 휴관)되며,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“한국의 전통정원뿐만 아니라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·문화프로그램을 준비 중”이라며 “다채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(www.sjna.or.kr) 누리집 교육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서비스본부 정원교육실	책임자	실 장	최지윤 (044-251-0249)
		담당자	대 리	이수연 (044-251-0260)



1.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'세종으로 온 창덕궁' 해설프로그램을 듣고 있다.



2. 국립세종수목원 내 한국전통정원 전경